

저스틴 신부님의 5월 9-10일 미사 강론 말씀 한국어 번역입니다.

지난주 ‘좋은 목자 주일’을 축하하며 사제를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총 가득찬미 예수님

한 시간 되십시오!

저자 Greg Mckeown은 딸이 태어난 다음 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의 아내는 지쳐있었지만 빛나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Greg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전화와 이메일을 보내고 있었고 회의 참석에도 초대되었습니다. 그는 가야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가족과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합니다. 회의에 도착했을때 고객들 조차도 그가 왜 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여론 조사에 따르면 126명중 81%는 건강, 재정, 직업/교육 같은 좋은 일들에 의해 많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주로 일과 가족에 의해 끌려 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의 표시이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질 때는 해롭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들이 따라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8살 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는데 “바빠요”라고 대답할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되어선 안되면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지 않는 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제 1독서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그들의 민족을 위해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리스계 유대인들이 히브리계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크리게 되었다.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배급을 받을 때에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사도6:1). 서기 36년인데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그리스어를 쓰는 그리스계 유대인과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 두개의 언어집단을 보게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불평한다’고 말할때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대해 불평했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화가 나있고 이것은 큰 문제이며 지도자들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실질적인 압력이 있습니다.

- 응답: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공동체를 불러 모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사도6:2.3).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세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부를 돌보는 것은 구약성서에서 명령한 좋은 일이지만 사도들로서는 더 중요한 것, 즉 기도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하지말아야 할 좋은 일이 무엇일까? 신학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우리가 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좋은 일들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우선 순위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말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분께서 카페르나움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그분을 머물게 하려고 했지만 그분께서는 더 큰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루카4:43).

- 모든 성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성녀 테레사 수녀는 학교를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Mother Teresa, *Come Be My Light*, 334). 왜냐하면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중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교회의 목회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George Weigel, *Witness to Hope*, 249, 267) 미래에 문제를 일으킨 로마 퀴리아라고 불리는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지만, 교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미래 문제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성녀 엘리자베스 앤 세튼은 어린자녀들을 둔 과부들을 돕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지만, 자신의 아픈 남편을 돌보기 위해 이것을 그만두었습니다 (Butler's *Lives of the Saints*, New edition, January, 35).
- 가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부들을 돕는 것이 하느님을 숭배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것이고, 과부들을 돌볼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 이러한 집중은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그들의 첫번째 사명은 서로에게 있으며, 그 다음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저녁 데이트, 친밀감, 대화가 필요하고, 그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이들을 방치하는 핑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일 것입니다.
-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왜 결혼한 부부들은 그렇게 쉽게 사랑이 식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다 모두 해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녁 데이트를 갈때 베이비 시터가 필요하다면 오피스로 연락하시면 우리의 훌륭한 10대들을 찾아주겠습니다(<http://thejustmeasure.ca/2019/08/11/laziness-or-rest/>).

사도들은 과부들을 돌볼 특정인을 임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평판이 좋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십시오.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사도6:3). 즉, 도움을 요청하고 위임하십시오. 그들은 그저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영적인 자질을 찾습니다.

성경학자 Fr. Raymond Brown은 이러한 결정은 성령에 의해 의지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우리가 오늘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더욱 자라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사제들의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사도6:7). 가장 좋은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도와주며,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 이번 주말에는 Chrissy Kendrick이 올해의 첫 성인 세례를 받게 되는데 크리시는 수년간의 여정과 성장 끝에 하느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고, 거룩한 성체를 모시고 견진 성사를 받게 됩니다. 크리시, 당신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단계를 거쳐봅시다:

- 1) 성령, 우리 삶에서 누가 필요로합니까? 우리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더 많은 시간과 추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더 많은 기도, 수면, 직업 아니면 저 건강해 지는 것이 필요한가요? 이석이 오늘 미사 후 온라인 채팅의 질문입니다.

“주님,저는\_\_\_\_\_에 도움이 필요합니다.”만약 너무 개인적인 것이라면 “주님 제가 가족을 더 사랑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와 같이 더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가 해 낼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께 인정하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헬레파 유다인들처럼, 우리는 그분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행동입니다.

- 2) 우리의 주된 임무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교회와 우리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은 무엇인가요?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우리는 더 흠어지고 좌절하게 되고, 악보다 선을 택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힘과 지혜를 잃게 됩니다.
- 3) 우리를 돕기 위해 누구를 임명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그분의 때에 누군가를 보낼 것입니다: 친구, 가족, 여기 우리 교구 신자. 이 시점에서 성령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그 중요한 도움은 그분께서 돌봐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몇몇은 어떤 방향으로도 끌려가는 것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불러온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성령님께서 행동에 나서라는 부름이 있는지를 들어보십시오.
  -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한 일을 임명하기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동생들을 돌보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집안에서 특정한 책임과 의무를 주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16살이 되면(적어도 캐나다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따서 가족들의 심부름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버스 타는 것을 꺼려한다거나 빈둥거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10대들에게 필요한 집안일을 시키거나,

조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게 하거나,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무작위로 사람을 임명하지 마십시오. 초기 교회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특정한 자질을 갖췄는 지를 보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Cynthia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특별한 밤을  
계획하기 시작했을 때 12살이었습니다. 그들은 몇달 동안이나 특별한  
밤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오후 4시30분에 아버지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기 전에 일찍  
출발하여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차이나타운으로 갑니다.  
기념품을 사고 야경을 보며 조금 걸은 다음 영화를 보고 호텔로 돌아와  
수영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마지막 쇼를 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었었습니다.

- 하지만 프리젠테이션을 떠나려 하는 순간 어느 오랜 친구가 그녀의  
아버지를 만났고 그들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아주 황홀해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를 저녁식사에 초대했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Bob, 만나서 정말 반가워. 부둣가에서의 저녁은 아주 좋아보여!”  
Cynthia는 망연자실 했습니다. 그녀는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았고 낯선  
사람과의 저녁식사 또한 지루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악인 것은 그녀가 몇달 동안 그녀 인생의 영웅과 함께 고대하던 밤이  
끝나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야.  
Cynthia와 나는 특별한 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어. 안그래?” 그는 그녀에게

윙크를 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걸어나갔고, 그들은 계획했던 밤,  
그들이 필요로 했던 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을 위해 원했던 밤을  
보냈습니다. Cythia는 그날 밤 그녀 아버지의 결정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와 영원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당신이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성령께서 당신을 위해 일차적으로 수행한 임무를 기억하십시오. 이번 Mother's Day 주말에는 어머니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좋은 일을 전부 다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임무를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최선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 가서 하느님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